진우 스님 "발고여락 자세로 종무 임하길"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

1월 2일 조계종 총무원 시무식
올해 '천년을세우다' 성과 기대
"부처님 법 온전히 전해" 다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년사를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부대중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종무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를 맞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세로 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불기 2568(202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서 이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스님은 제37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년을세우다'의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명상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제 선명상대회 개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방안 확정 △2024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등 올해 주요 사업을 언급한 뒤 "미래본부를 비롯한 각 부서가 종단의 사회적 회향을 위한 정진에 적극 동참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님은 올해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30년의 현대화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틀을 세워나가는 불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문화유산 전승과 국민 향유를 돕는 제도 개선, 국립공원 내 사찰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각원,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업 모두 사부대중과 국민 나아가 중생의 삶을 평안하게 한다는 발고여락의 자세로 진행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며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종무에 진력해 세상을 비추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무식에선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종무원에게 새해맞이 덕담을 전했다. 범해 스님은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다함께 진력하자"고 말했으며, 선업 스님은 "전법·포교 가장 일선에 있는 포교원이 더 파이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무식 참석 대중은 종무원조합 김동욱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처님 법 온전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파리 길상사, 유럽 연락사무소 지정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찰 네트워크 강화 기대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유럽 연락사무소로 지정됐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에 따르면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파리 길상사의 해외특별교구 유럽 연락사무소 지정을 승인했다. 해외 연락사무소는 전 총무원장 자승 대종사가 2011년과 2016년 한불 수교를 기념한 불교문화행사 당시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개설됐다. 종단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해외 포교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해외교구에 따르면 파리 길상사의 연락사무소 지정은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이다. 한국의 산사 7개 전통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된 〈직지심체요절〉 또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계인들이 유네스코를 방문한 뒤 길상사를 찾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K팝을 비롯해 한국·불교문화에 관심 갖게 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해외특별교구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해외교구 유럽 연락사무소가 지정됨에 따라 프랑스 길상사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 유럽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찰과의 연계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연락사무소 지정을 계기로 종단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된 만큼 유럽 내 한국불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유럽불교 단체와의 협력도 기대된다. 주어진 소임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락사무소 지정을 계기로 서산 간월암(주지 정경 스님)은 길상사 수해복구 불사금 500만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발전에 최선 다하자"

전국비구니회 · 국제포교사회 등
새해 진우 스님 예방 잇달아
'명상 중심' 포교 확대도 강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주요 단체의 총무원장 예방과 신년하례가 잇달았다.

먼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종회의원스님들은 1월 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부 승가의 한 축이 될 것을 약속했다. 예방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종회의원 철우·정관·법해 스님, 부회장 혜욱·정묵·서광·혜솔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회장 취임 두 달여가 지난 광용 스님에게 "비구니회가 더욱 편안해진 느낌이다. 덕화가 훌륭한 비구니스님들을 만나면 관세음보살 품안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종단도 비구니스님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용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덕화와 기량으로 종단을 안정으로 이끌어줘서 든든하고 감사하다"면서 "종단 행정이 안정돼야 수행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 비구니회 임원진들에게 "비구니스님들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할애된 부분이 없지 않기에 관심 갖고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는 지향점이 같다. 앞으로도 한국불교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월 4일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과 임원진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2개 부서의 활동을 보고했다. 또 1월 14일 열리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설명하며 "세계대회로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킬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정혜 스님이 "현재 국제포교사 130여 명이 불교상담개발원에서 명상지도자과정을 통해 정진 중"이라고 설명하자 진우 스님은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명상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중"이라면서 "국제포교사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방을 우선으로 한 국민 건강증진에 명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또 1월 5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지역 신도대표들의 신년하례에서 종단이 개발 중인 'K-명상'을 중심으로 포교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군포교를 위해 군종교구와 전담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힌 스님은 "올해는 군에서 진행하는 수계법회에도 직접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국립공원에 전통사찰 소통 주문

송형근 이사장 등 임원진 1월 4일 조계종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공단 임원진에게 공원 내 전통사찰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예방에는 공단 측 김경순 상임감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김영일 탐방안전이사가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선 기획실장 우봉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배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진우 스님은 먼저 지난해 도립공원 지정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동화사·은해사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팔공산국립공원 마스터플랜'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 전후로 기념행사를 팔공산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또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을 묻는 진우 스님 질문에 "산과 하천, 바다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관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라고 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진우 스님은 송 이사장에게 "종단 및 국립공원 내 사찰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며 당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